

## Session 05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the First Commandment to the Second)

### I. 가장 중요한 두 계명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6-40)*

- A. 이 코스의 기본적인 전제 :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기쁨 부으심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두 계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계명을 첫째에 두는 것은 사역을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삼는 것이다.
- B.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신명기 6:5절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 세 가지를 더하셨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셋째, 하나님의 목적은 이 계명들로부터 나온다 (이 계명들에 매달려 있고, 기대고 있다).

### II. 복습 : 사랑의 네 단계

- A. 단계 #1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음(엡 3:18-19). 아버지이자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는 가장 근간이 되는 진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 B. 단계 #2 :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26 내(예수님)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 C. 단계 #3 :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며(고후 5:17),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성품, 은사, 부르심, 지으신 형체 등; 시 139:13-17)를 기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의 가치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르다. 우리의 눈을 다른 이들(시기)과 우리의 실패(정죄)로부터 돌려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

- D. 단계 #4 :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이며, 인간의 마음에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 하심의 궁극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넘쳐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일 3:18-19)*

### III.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유사하다)” : 세 가지 방법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9)*

- A. 첫째,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 B.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감상주의 그 이상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힘으로 사랑하기를 구해야 한다.
- C. 셋째, 사랑 안에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감성은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감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극받고 강건케 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인자(Person, 예수님)와의 계속되는 사랑의 경험이다.

*5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 D.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넘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활을 유지할 수 있다.
- E.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힘과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

## Session 05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

한 사랑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만 다른 이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F. 이 계명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재조정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 G.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 H. 우리는 우리 자신 “대신”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닌,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이는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을 측량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초점과 에너지의 동일한 분량”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기 위해 더 많은 재정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우리를 통해 부어지게 된다.
- I. 다른 이들을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소망과 용납되기를 원하는 소망, 성공을 향한 소망을 우리 자신의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그들은 우리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 J.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새로운 깊이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보일 때, 우리 자신이 이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과격한 계명은 우리 존재의 핵심에 영향을 끼친다. 이 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가 드러나도록 한다.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영적인 결핍을 볼 수 있다.

## IV.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근원이자 목적이다

- A.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40)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두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각 계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말씀하신다. 율법과 선지서에 선포된 하나님의 목적들은 사랑에 매달려 있다(의지하고 있다, 줄에 매달린 물통처럼).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40)*

*40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한글 KJV, 마 22:40)*

*40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표준새번역, 마 22:40)*

## Session 05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

- B.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성취된다.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8 ...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 C. 바울은 청결한 마음(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를 부요케 하고자 하는 동기)으로 사랑하며 정죄가 없는 선한 양심(롬 8:1)과 굳건한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할 것을 권했다.

*5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딤후 1:5)*

- D. 정리 :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마 7:12; 롬 13:8-10)이자 근원이다. 즉,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두 계명에 의지한다.

- E. 우리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는) 산상 수훈의 황금률을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심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이 계명은 기도에 대한 부르심 안에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다.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7-12)*

- F. 사랑을 행하라는 부르심은 기도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문맥에서 주어졌다. 이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계시와,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의 삶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들은, 음식과 기도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 세레 요한, 엘리야,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한다.

- G. 이 사랑은 사람들의 물리적인 요구를 음식과 옷을 통해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요구의 만족,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 H. 사랑은 감상주의로 가득 찬 인본주의 그 이상을 요구한다. 이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됨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올바른 동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定義)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대로 사랑을 정의해야 하며, 예수님께 대한 순종과 관계없는 인본주의적 문화의 정의로 사랑을 정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선행의 참된 정의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됨

에서 찾을 수 있다.

- I.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 일깨우시며, 이는 인간의 더 큰 영원한 필요를 만족시킨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며(우리에게로 이끌지 않으며), 그들의 영원하고 더 큰 필요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대로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야 한다.

## V. 사랑이 가진 최상의 가치 :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

- A. 사랑이 가진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롬 14:10-12; 고후 5:10)라는 영원한 영역에 비추어볼 때 이해될 수 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함을 강조했다(고전 3:10-15).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3)*

- B. 사랑의 성격(고전 13:4-7) :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거룩).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오래 참으며(가혹하게 심판하지 않음) 온유한 것(4a)이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사랑이 행하지 않아야 할 것 8가지(4b-6b)와 행해야 할 것 5가지를 정의한다(6-7절).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 C. 사랑의 탁월함은 이것이 영원까지 남는 것에서 볼 수 있다.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없어진다) (고전 13:8)*

*8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표준새번역, 고전 13:8)*

- D.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 이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모든 마음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에 투자한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 E.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다. 믿음(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은 성령님의 은사를 풀어놓는 통로가 된다. 사랑은 이 일들의 목적이 된다. 믿음은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며, 사랑은 왜 이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소망은 우리를 안정시킨다. 우리는 믿음 안에 강건하며, 소망에 닳을 내리고, 사랑 안에 걸어가야 한다.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